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6. 11. 11(수) 배포시	배포일시	2026. 11. 11.(수) 배포시

민주당,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

- 최근 가격이 급락한 배추 등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정책 등

회의 개요

○ **일시·장소** : 2026. 11. 11.(수) 13:30~14:30, 국회의원회관 302호

○ **참석자**

- 윤준병 농해수정조위원장, 문금주·송옥주·문대림·이재관·김성범 의원

□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(위원장 윤준병)는 11월11일, 최근 생산량 증가 등으로 배추·무와 일부 과일·과채류의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받고,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·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에 대응하여 수매비축 등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고 소비촉진을 병행 추진한다고 보고하였다.

□ 배추의 경우 평년대비 초과 생산이 전망됨에 따라 시장격리, 정부 수매비축,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여 초과 물량을 해소하고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겨울배추 추가 비축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□ 이와 더불어, 김장철을 맞아 「김장 한 포기 더하기」 캠페인을 중심

으로 국민들의 김장 참여를 확대하고, 공공기관·기업의 김치 구매 및 기부, 김장 나눔행사 등을 통해 배추·무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□ 과일·과채류는 저품위 물량 격리 등을 통한 출하조절,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응한다고 설명하였다.

□ 아울러,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 및 수입안정 보험을 통해 수입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.

□ 농해수 정조위원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① 배추 시장격리물량 확대, ② 안정생산지원 및 수입안정보험 대상에 노지 감귤 등 추가, ③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무·배추 포함 등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.

□ 또한, 농해수 정조위원들은 농산물 소비촉진이 실질적인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소비촉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, 배추 수매·비축 및 시장격리 추진 시점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가격안정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, ‘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격안정제 등 농산물 가격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